



A Prudential plc (UK) company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 보고서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운용기간 : 2024년 11월 25일 – 2025년 02월 24일

- 이 상품은 [주식형 펀드]로서, [추가 입금이 가능한 추가형이고, 다양한 판매보수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종류형 펀드입니다.]
-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공지사항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모자형 구조로써 이 자산운용보고서의 자산구성 현황, 보유종목, 보수 및 비용 등의 정보는 고객님이 가입한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가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자산운용회사인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한국씨티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L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소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Eastspring Asset Management Korea Co. Ltd.)는 177년¹ 전통의 역사를 가진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Prudential plc)의 자산운용 부문 브랜드 중 하나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Eastspring Investments)의 일원으로서 한국에서 개인 및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상품과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루덴셜 그룹이 굿모닝투자신탁을 2002년 인수하며 대주주가 된 이래 PCA투신운용, PCA자산운용의 사명을 거쳐, 2012년 그룹 차원에서 아시아 자산운용 사업 부문을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로 브랜드를 변경하며 현재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가 되었습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코리아는 영국에서 설립된 프루덴셜 금융그룹(Prudential plc)의 일원입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푸르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 및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Eastspring Investments)는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Prudential plc)에 속한 아시아에 핵심 기반을 둔 글로벌 자산운용사입니다. ‘고객의 미래에 투자하는 아시아의 투자 전문가 (Experts in Asia, Invested in Your Future)’라는 뚜렷한 목표를 바탕으로 고객분들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험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의 경쟁력입니다. 이스트스프링은 고객, 임직원, 파트너, 주주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 모두를 위한 미래에 확고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5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는 북미, 유럽의 판매 사무소를 비롯해 11개 아시아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글로벌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미달러 기준 2,710억 규모²의 주식, 채권, 멀티에셋, 퀀트, 대체 전략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의 각 부문별 다양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열린 대화와 토론 문화는, 투자자들을 위한 최선의 투자 아이디어와 높은 확신을 가진 투자 견해를 추구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으며 UN 책임투자 원칙에 서명한 회원사입니다. 이스트스프링 투자팀은 투자 철학과 투자 과정에 ESG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는 고객분들을 위한 양질의 투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열정과 최선을 다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¹ 2025년 기준

² 2024년 9월말 기준



Sales and Investment Office Sales Office • Joint Venture

Contents

02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소개

03 CEO 인사말

04 펀드 브리핑

06 펀드용어 해설

07 1. 펀드의 개요

2. 수익률현황

08 3. 자산 현황

09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5. 비용 현황

6. 투자자산 매매내역

7. 동일한(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현황

8. 펀드 관련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각종 보고서 확인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 www.eastspringinvestments.co.kr
- 금융투자협회 : <http://dis.kofia.or.kr>



CEO 인사말



A Prudential plc (UK) company



항상 저희 이스트스프링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코리아는 177년 전통의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Prudential plc)의 일원으로서 아시아 중심의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Eastspring Investments)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Eastspring Investments)는 아시아 지역의 11개 나라에서 약 377조원(기준일: 2024년 9월말)에 달하는 고객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스프링의 운용기술과 경험이 모회사인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의 리스크 관리 노하우와 결합하여,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코리아는 국내에 운용조직을 두고 전통적인 국내 액티브 주식형, 채권형 펀드뿐만 아니라 인덱스 펀드, 퀀트 기법을 접목한 EMP(ETF Managed Portfolio)펀드 등 다양한 전략의 상품을 직접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스트스프링 아시아 지역 본부와 영국 프루덴셜 금융 그룹의 관계사 등과 끊임없이 투자 의견을 교환하며 중국 A주, 글로벌 이머징 시장 주식, 미국 투자적격회사채, 골드 펀드 등 선진/신흥 및 대체 시장의 다양한 자산과 전략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꾸준히 국내 시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 라인업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과 개개인의 수익-위험 선호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스프링은 또한 전사적으로 국제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도입해 투자 결정 과정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코리아는 2019년 책임투자위원회를 신설하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기존의 지속성장기업 주식형 펀드의 운용을 더욱 체계화하여 사회책임투자 운용사로서의 역량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 차세로 기존 액티브 운용에 산학 연구의 결과로 얻은 딥러닝 알고리즘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운용 프로세스를 강화하는데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세계 경제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대 언어모델(LLM)과 같은 기술 혁신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에 있어 투자기회에 대한 선별, 철저한 기업 분석, 엄격한 규율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미래에 투자하는 아시아의 투자 전문가 (Experts in Asia, Invested in Your Future)’로서 그리고 고객의 든든한 자산운용 조력자로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이러한 상황들을 주시하며 투자자들의 후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박 천웅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코리아는 영국에서 설립된 프루덴셜 금융그룹(Prudential plc)의 일원입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푸르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내가가입한 펀드 브리핑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운용기간 : 2024년 11월 25일 – 2025년 02월 24일



펀드매니저
고은

내 펀드의 운용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및 공화당이 승리함에 따라 글로벌 증시에서 선진국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2월 FOMC에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통화정책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뚜렷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함에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 기계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의 AI 투자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딥시크 논문이 발표되며 반도체 및 AI 인프라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며 반도체 업종은 다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되며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펀드는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 기계 업종과 철강 업종의 시장 비중 대비 underweight 효과가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던 반면, 의약, 인터넷, 반도체 업종은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의약, 인터넷, 반도체 업종은 펀드 성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4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배전시장으로의 확장이 기대된 LS ELECTRIC, 예상보다 빠른 본업 정상화와 미 해군 MRO 사업 기대감이 반영된 한화오션, 선박 엔진 대형 수주가 지속된 한화엔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일라이릴리와의 1개월 이상의 지속형 플랫폼에 대해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하며 급등 후 유상증자 물량 오버행 이슈로 수급이 악화된 웹트론 매출이 정체되고 있는데도 뚜렷한 성장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카카오, 제약업종의 급격한 주가 조정으로 인해 조정폭이 커던 보로노이는 펀드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내 펀드의 최근 3개월, 1년, 5년 수익률은?

(단위 : %)

펀드명	최근 3개월 수익률	최근 1년 수익률	최근 5년 수익률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8.82	3.49	36.95
(비교지수대비 성과)	(3.06)	(4.33)	(9.71)
비교지수	5.76	-0.84	27.24

* 비교지수 : KOSPI 100%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펀드의 투자실적은 펀드의 종류형별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펀드의 비교지수 변경 내역은 보고서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 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기 수익률은 단순 누적 수익률이며, 보수 공제 전 세전 수익률 기준입니다.

내가가입한 펀드 브리핑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운용기간 : 2024년 11월 25일 – 2025년 02월 24일



내 펀드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국가들과의 관세 및 종전 협상과 관련된 이슈들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취임시기와는 달리 중국 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다양한 국가로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EU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인 국방을 갖추기 위한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작업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EU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EU의 국방비 증액과는 별도로 미국은 자국의 방어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생각해보았을 때 한국의 방산과 조선에 대한 수혜는 생각보다 긴 기간동안 지속될 수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인 방어력을 구축해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업체들의 메리트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수혜는 미국 LNG 프로젝트에 따른 수혜 외에도 국방과 관련된 수주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딥시크 발표의 충격이 컸습니다. 데이터를 자산처럼 접근하는 시각과는 달리 중국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글로벌 빅테크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경쟁력의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턴어라운드 내수주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